

공백기 깬 선수들 복귀...벨로드롬 지각변동

공백기 길었던 선수 vs 기존 선수
선발급 강급 이창용 겨우 결승행
손주영·곽훈신은 삼복승 못들어
"득점도 믿을 게 못되는 혼전 양상"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긴 공백기 이후 선수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예년에 비해 혼전 양상의 경주가 부쩍 늘었다. 시즌 초반 판도 분석에서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예년 같으면 시즌 초반에는 강급된 선수들과 신인의 격돌, 여기에 기존 각 급별 우수 전력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하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 공백기를 가졌던 선수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혼전 양상의 경주가 크게 늘었다. 경주 수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편성이 가능해진 것도 이런 흐름을 부채질하고 있다.

● "득점 무시할 수 없다" 속설 깨져

우선 "경륜은 득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오랜 속설이 최근 경기에서 깨지고 있다. 가장 잘 보여준 경기가 2일 부산에서 열린 6경주다. 이 경주는 결승전도 아니고 기존 우수급 강자 김민배(23기, 세종)와 유성철(18기, 진주)의 득점이 높아 이들이 우승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물론 다수의 팬들도 예상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김민배가 공백기가 있던 임영안, 유성철 등의 사이에서 자리를 잡으려 했으나 아무도 자리를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민배는 어쩔

수 없이 한 바퀴 반이라는 강수를 두며 입장을 시도했다. 결국 초주를 배정받은 장우준(24기, 부산)이 김민배를 받아가는 형국이 되면서 상승식 58.5배, 삼쌍승식은 무려 289.4배라는 초고배당이 나왔다. 이 경주를 기점으로 7일부터 대부분 경주에서 득점순이 아닌 공백기가 길었던 선수들과 기존선수들 간의 격돌이라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상대를 압도하며 활약하던 경향도 올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랜 공백기에 경기 감각이 떨어진 탓도 있지만 선발급으로 강급된 이창용(11기 생산)의 경우 7일과 8일 2차에 만족하며 겨우 결승에 진출했다. 손주영(20기, 구미), 곽훈신(15기, 미원)은 아예 삼복승 안에 들지도 못했다.

우수급도 별반 차이는 없었다. 특선급에서도 통할 투입력으로 평가받는 김중

력(11기, 김해A)이 2, 3차에 그쳐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그나마 김주동(16기 35세 상남), 김정태(15기 38세 가평)는 토요일경주 2차로 득점 우위를 통해 결승에 올랐다. 강급자들이 키를 쥐고 있던 예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 개인별 경기력과 승부지 체크해야

그래도 공백기를 가졌던 선수들이 내세울 것은 강한 승부욕이다. 윤민우(20기, 상남)는 2일 창원 5경주에서 강자로 손꼽히던 박용범을 상대로 약착같은 투입력을 보여 주며 쌍승판을 바꾸어 놓았다.

앞서 열린 경주에서도 박병하의 후미에 있던 이현구(16기, 김해A)가 그림 같은 투입력으로 팬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강한 승부 의지를 보인다면 경기 감각이 떨어지더라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셈이다.

명품경륜 승부사 김순규 수석기자는 "예년과는 너무나 다른 시즌 초반 판도여서 득점도 출주간격도 모두 믿을 것이 못되는 혼전 양상이 계속된다면 배당판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선수 개인별 경기력과 승부지, 훈련량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공백기가 긴 선수들은 강급자라도 맹신은 금물이고 인터뷰 등을 참고해 어떤 선수가 꾸준한 훈련을 해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새로운 '경륜황제' 임채빈 2021시즌 상금왕도 차지

3차례 대상경륜 우승해 '2억4858만 원'
정하늘 1억8085만원 2위...정정교 3위

지난해 열린 3번의 대상경륜에서 모두 우승한 임채빈(25기 31세 수성)이 2021시즌 상금왕을 차지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임채빈은 2억4858만 원으로 지난해 경륜선수 중 가장 많은 총상금을 기록했다. 정상적인 경주를 진행했던 2019년 상금왕 정종진의 2억9304만원과는 차이가 좀 있지만 코로나19로 경주 수와 대상경주 축소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돋보이는 성적이다.

임채빈에 이어 정하늘(21기 32세 동서울)이 1억8085만원으로 2위를 차지해 2019시즌보다 순위가 2계단 올라섰다. 3위는 정정교(21기 32세 김포). 2위와의 총상금 차이가 21만 원에 불과했다.

이어 인치환(17기 39세 김포), 황승호(19기 36세 김포), 신은섭(18기 35세 동서울), 정재원(19기 36세 김포), 정종진(20기 35세 김포), 공태민(24기 33세 김포), 정해민(22기 32세 동서울)이 4위부터 10위까지 차례로 차지했다. 정정교, 인치환, 정재원, 공태민은 처음으로 상금순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 특선급 평균상금은 684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의 1억3012만원과 비교해 떨어졌다. 코로나19로 2021년 1회차~7회차, 16회차~21회차를 각각 휴장하고 경주도 광명기준 하루 6경주, 7경주, 9경주, 12경주 등 정상운영이 안 돼 변동이 심했던 영향을 받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순위	선수명	기수	등급	상금총액	훈련지
1	임채빈	25	SS	2억4858만3200원	수성
2	정하늘	21	SS	1억8084만8200원	동서울
3	정정교	21	S1	1억8064만3300원	김포
4	인치환	17	S1	1억7271만7900원	김포
5	황승호	19	S1	1억6552만2200원	김포
6	신은섭	18	S1	1억6060만7800원	동서울
7	정재원	19	S1	1억5971만9100원	김포
8	정종진	20	SS	1억4696만1300원	김포
9	공태민	24	S1	1억4490만9700원	김포
10	정해민	22	S1	1억4229만5500원	동서울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출발위반 누적제재 폐지...올해 경정 초반 주도권 싸움 치열

새 개편 속 1회차 경기 박진감 넘쳐
"신인도 모터기력 받쳐 준다면 승산"

2022년 경정은 주선보류 완화 등 경주 운영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 결과 시즌 초반부터 선수들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올해 경정은 주선보류자 선정기준인 출발위반과 평균사고점 등에 대한 누적제재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평균득점 하위 7%이하만 주선보류자로 단일화해 선수들의 부담을 줄이고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5일과 6일 새로운 개편 아래 열린 1회차

는 어느 해보다 박진감이 넘쳤다. 우선 쌍승식 기준 최저배당은 2일차 7경주(2.5배, 1차 김지현 2차 나병창)였고 최고배당은 목요일 14경주(21.2배, 1차 김지현 2차 한준희)였다. 두 경기 모두 김지현(11기 36세 A2)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지현은 지난해 37회 출전 중 1차 12회, 2차 5회, 3차 8회로 승률 32.4% 연대율 45.9% 3연대율 67.6%를 기록했다. 올 시즌은 초반부터 3회 출전 중 1차 2회로 산뜻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최재원(2기 55세 B1)의 초반 행보도 상당하다. 최재원은 2021시즌 38회 출전 중 1차 3회에 불과해 승률 7.9%였다. 하지만 올 시즌은 1회차 3회 출전해 모두 1차(승률 100%)를 하며 침체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모터 배정도 있었지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1번 공력이 인상적이었다. 지난해 그랑프리 우승과 상금왕을 차지한 김종민(2기 46세 A1)도 1회차에서 3회 출전해 1차 2회, 3차 1회로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다.

신인들의 활약도 관심을 모았다. 16기 손우정(B2 32세)은 1일차 6경주에 출전해 0.13초의 스타트를 통해 짜르기로 선두에 나선 후 선배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우승하며 쌍승식 93.0배를 기록했다. 2021시즌 신인왕인 16기 나중호는 신인답지 않은 과감한 스타트(2021시즌 0.13초)와 적극적인 1번 전개로 기대를 받고 있다. 14기 박원규 이후 오랜만에 패기 넘치는 신인을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1일차 2경주에서 1차를 기록했다.

전동욱도 안정적인 스타트(2021시즌 0.23초)를 바탕으로 차분한 1번 전개를 펼쳐며 개인통산 7승으로 나중호와 함께 16기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잡았다. 올해도 1일차 8경주에서 1차를 기록했다.

이 외에 1회차에서 2승을 거둔 권병호(17기), 김민길(8기), 류석현(12기), 이진우(13기) 등도 산뜻한 출발로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이서범 경정코리아 경기분석 위원은 "최근 경주흐름을 본다면 기존 강자들의 주도적인 경기력 못지않게 경주경험이 다소 부족한 신인들도 모터기력과 코스만 받쳐준다면 언제든지 경주를 주도할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적중을 위해서는 한층 더 심도 있는 경주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이동식 완벽 공간소독 바이러스를 입구에서부터 차단하세요

★ 자동소독살균시스템 CB-01

CB-01은 기기에 인체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3~5m 정도 거리의 인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4개의 노즐 사이로 살균수가 분사되는 자동 방역 시스템입니다. 초음파 미립 입자로 분사되어 옷이 젖을 염려가 없고 그 주변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99.9% 살균이 가능합니다.

- ※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사용으로 안정적인 전기분해를 통해 무향, 무취, 살균소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 식품첨가물로 지정, 안전한 친환경 살균소독제 친환경 프리미엄 살균소독제입니다.

- 1m50cm 정도의 길이로 보관 및 취급이 편리하고 이동성이 용이
- 인체감지센서 3~5m정도 거리의 인체를 감지하여 자동분사
- 초음파 미립 입자 분사



■ 활용장소

학교, 유치원, 도서관, 학원시설, 군부대, 교회, 요양병원(공동생활공간), 상가, 병원, 실내체육관, 화장실, 헬스장, 수영장 등

COCOON
http://cococon-one.co.kr/
(주)코쿤

가맹 및 설치문의

1644-0506

